

앙드레 말로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실존의식과 존재의미

오 세 정
(경희대학교)

◆ 국문초록

20세기의 서양사상 가운데 하나인 실존주의는 1·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파시즘의 확산, 스페인내란전쟁 등의 비극적 사건을 겪으며 이성과 과학발달이 인간을 순식간에 피폐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결과를 낳게 되자 인간을 위해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시대정신이다. 앙드레 말로는 문학작품 속에서 등장인물들의 운명으로써 삶과 죽음의 문제를 제기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에 대한 실존적 고뇌를 기록한다. 말로의 등장인물들에게 있어 인간의 정체성과 관련된 존재의 부조리는 실존적 자기 성찰을 의미한다. 작가는 생존의 위협이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전쟁과 테러, 혁명, 모험 속에서 그들이 죽음에 직면해 운명에 대한 실존적 의식과 행위를 숙고한다. 말로는 자신의 모든 문학 작품들 속에서 죽음의 문제를 밀도 있게 다루고 있으며 이는 철학적 사고의 중심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말로는 『정복자』(*Les Conquérants*, 1928), 『왕도의 길』(*La Voie Royale*, 1930), 『인간조건』(*La Condition Humaine*, 1933), 『희망』(*L'Espoir*, 1937)의 장편소설에서 비극적 상황에 놓인 등장인물들을 통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명제를 제시하며, 그들이 운명을 스스로 지배하려는 실존의식과 존재의미를 추구한다. 말로는 이러한 비극적 세계관 속에서 인간성과 삶의 긍정, 죽음을 부정하는 등장인물들의 의식과 행동을 나타낸다. 죽음의 고뇌는 예측할 수 없는 본능적인 욕구와 도박, 아편 등의 도피적 행동을 유발하지만, 그것은 절망에서 벗어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며 자신의 존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연계된 것이다.

말로의 실존주의적 사고로서 항상 부각되는 점은 죽음에 대한 운명의식으로 인해 결국엔 인간이 얼마나 고독한 존재인가라는 숙명적 인간조건에 비극적 형이상학이다. 하지만 소설에서 등장인물들은 모험과 혁명, 전쟁 속에서 동료들과 함께 행동하며 타인을 위하여 개인주의를 초월하는 동지애적인 연대의식은 인간존중이 된다. 인간애와 인간성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자발적으로 구성된 인간들 사이의 동지애는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인간의 위대함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로의 동지애는 휴머니즘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의식의 승리를 포함한다.

주제어 : 앙드레 말로, 실존의식, 존재의미, 자기성찰, 철학적 사고

1. 머리말

20세기 서양사상의 중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인 실존주의는 1·2차 세계 대전과 대공황, 파시즘의 확산, 스페인내란전쟁 등의 참혹한 역사적 사건을 겪으며 이성과 과학발달이 인간을 순식간에 피폐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결과를 낳게 되자 인간을 위해 인간에 의한 실존을 인식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시대정신이다. 앙드레 말로는 자신의 문학작품 속에서 등장인물들을 운명적으로 쫓아 다니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제기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에 대한 실존적 고민을 기록한다. 이러한 운명의 조명에 대해 그는 인간을 억압하는 현대 물질문명의 총체적 상황을 표현하는 언어로써 삶의 무의미를 나타내는 부조리라는 단어를 카뮈의 『이방인』(*L'Étranger*, 1942)보다 훨씬 앞서 『서양의 유혹』(*La Tentation de l'Occident*, 1926)에서부터 사용하여 여러 문학작품들 속에 자주 나타내고 있으며, 인간의 자아의식과 관련된 존재론적인 실존의 문제를 사르트르의 『구토』(*La Nausée*, 1938)보다 먼저 『인간조건』(*La Condition Humaine*, 1933)에서 밀도 있게 제기한다.¹⁾

말로의 등장인물들에게 있어 인간의 정체성과 관련된 존재의 부조리는 실존하는 자기 확인을 의미한다. 작가는 생존의 위협이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전쟁과 테러, 혁명, 모험 속에서 그들이 죽음이라는 운명의 대상 앞에서 실존의 경지로 이행하려는 인간의 의식과 행위를 숙고한다. 말로는 자신의 모든 문학 작품들 속에서 죽음의 문제를 밀도 있게 다루고 있으며 이는 철학적 사고의 중심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가 제기하는 죽음의 문제는 인간존재의 한계를 분명하게 내포하고 있으며 운명에 대한 부조리의 증거가 되기도 한다. 또한 죽음은 삶의 어떠한 의미와 가치도 허용하지 않으며 인간은 그것 앞에서 모든 기반을 상실하기에 운명의 고민과 함께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말로는 정복자(*Les Conquistadors*, 1928), 『왕도의 길』(*La Voie*

1) 사르트르의 『구토』(*La Nausée*, 1938)에서 로캥탱이 자신의 손을 보고 마치 게(*le crabe*)처럼 느끼고 경악한 것과 마찬가지로 말로의 『인간조건』(*La Condition Humaine*, 1933)에서 기요는 디스크에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알아듣지 못하고 대경실색하여 의사소통의 부조리와 인간존재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연구가들에 의해 누누이 회자되는 대목이다.

Royale, 1930), 『인간조건』(*La Condition Humaine*, 1933), 『희망』(*L'Espoir*, 1937)의 장편소설에서 이러한 비극적 상황에 놓인 등장인물들을 통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명제를 제시하며, 운명의 소외로부터 해방되어 그들이 스스로 삶의 주체자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낸다.

II. 본말

인간존재의 종말로서 죽음에 대한 작가의 사고는 인간조건과 운명에 대한 개념과 연계시켜 설명한다. 인간조건은 누구나 겪게 되는 생로병사의 현상이지만 이로 인해 인간은 우주와 시간 속에 종속된 존재로 삶의 의지를 상실하고 운명의 시련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말로의 등장인물들에게 있어 죽음은 육체적 소멸에 대한 공포와 내적 불안을 부추기며 자아의식과 관련된 삶의 본질적인 고뇌로 인식된다. 그들은 죽음으로 인해 절망감에 사로잡히며 존재의 추락을 체득한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운명을 스스로 지배하려는 실존의식과 존재의미를 추구한다.

1. 죽음의 고뇌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운명의 대상으로서 인식하게 될 때 공포감에 사로잡히며 이러한 실존적 불안은 인간존재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 행동과 의식을 끊임없이 제어하게 된다. 죽음은 제한된 시간에 대한 공포감을 불러일으켜 삶의 의지를 상실케 하기 때문이다. 말로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목숨을 위협하는 혁명, 모험, 전쟁 등에 뛰어들면서 죽음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힌다. 죽음의 강박관념은 그들의 도덕의식을 변화시키고 예상치 못한 행위를 유발하기도 한다. 『인간조건』(*La Condition Humaine*, 1933)에서 노동자들이 정부군을 상대로 혁명을 일으키기 직전에 부부혁명투사인 여의사 메이는 남편 기요에게 직장동료 랑글랑과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고 고백한다. 그녀는 자신의 외도행위가 죽음에 대한 위협에서 왔으며, 인간은 죽음 앞에서 사랑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욕망을 느낀다고 말한다.

“J’ai fini par coucher avec Lenglen, cet après-midi. [...] En face de la mort, cela comptait si peu... Mais elle dit seulement : ... moi aussi, demain, je peux mourir... . [...] Il y a des appels, sourt quand on est si près de la mort(c’est de celle des autres que j’ai l’habitude, Kyo...) qui n’ont rien à voir avec l’amour.”²⁾

나는 오늘 오후에 랑글랑과 동침을 했어요. [...] 죽음 앞에서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 저 역시 내일 죽을 지도 모르죠 ... 라고 다만 말했다. [...] 죽음에 직면하게 될 때에 (내가 익숙해진 것은 다른 사람의 죽음이었죠, 기요...) 사랑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면서 유혹을 느끼게 되요.

소설에서 메이의 부정행위는 실존적 불안이라는 죽음의 강박관념이 등장 인물들의 의식에 심각하게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그것은 도덕을 초월한 인간의 본능적인 행위를 유발시키는 것이다. 소설의 인물들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존의 위협이 현실화되자 죽음은 인생의 소멸이라는 소외의식에 휩싸여 실존적 고뇌에 빠진 것이다. 말로는 삶의 여정에서 축적된 고통이 죽음으로 인도되지 아니할 때만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³⁾ 말로는 작품 속에서 죽음의 의식이나 부조리한 상황에서 기인하는 운명의 공허감과 무력감에서 벗어나려는 등장인물들의 이미지를 자주 투영하고 있다. 죽음의 강박관념이 만연되어 있는 주인공들이 세계의 부조리를 느끼며 실존을 자각하는 방법으로써의 태도와 의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의 강박관념은 그들의 억압할 수 없는 천성과 대치되며 경우에 따라 죽음에 대한 의식이 그들의 상반된 태도로 나타난다. 죽음의 위협에서 기인하는 현실의 중압감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등장인물들의 태도와 함께 그 강박감으로 인한 도피적 행위도 드러나기 때문이다. 『인간조건』(*La Condition Humaine*, 1933)에서 죽음의 의식에 대한 첼과 기요의 태도는 극단적인 태도로 표출되며, 클라비크와 지조르의 행위는 도피적 형태로 나타난다.

2) Malraux(André), *La Condition Humaine*, Bibliothèque de la Pléiade(Gallimard) Œuvres Complètes I, Paris, 1989, pp.543-545.

3) *Ibid.*, pp.542-543.

몰락한 귀족 출신으로 망상증 환자이자 알코올중독의 인물인 클라비크는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삶의 고뇌로 인하여 인생을 망상 속에서 살며 현실을 비판적으로만 인식한다.⁴⁾ 그는 현실을 마치 공포와 불안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죽음의 강박관념에서 오는 실존적 중압감을 잊어버리려고 도박을 통한 현실도피의 행각을 벌인다. 소설에서 혁명세력인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자 클라비크는 기요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그와 약속을 하지만 약속장소에서 정보전달을 고의로 저버리고 룰렛도박에 매달린다. 도박은 그에게 역동적인 감정을 제공하며 도박의 세계 속에서 자신이 마치 룰렛의 공이 된 것처럼 수동적 혼란 상태가 되어 자신이 운명을 지배하는 착각 속에 빠져들고 삶의 불안과 고뇌를 망각한다.

“Qu’avait à voir avec l’argent cette boule qui hésitait au bord des trous comme un museau et par quoi il étreignait son propre destin, le seul moyen qu’il eût jamais trouvé de se posséder lui-même!”⁵⁾

조그만 구멍 주변에서 망설이고 있는 이 공이 돈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클라비크는 그 공을 통하여 자기의 운명을 껴안고, 그가 자기 자신을 소유하려고 파악한 유일한 수단 이었다!

클라비크는 도박 속에서 죽음의 강박관념으로 인한 실존적 고뇌를 망각하는 주체적 자아의식의 상실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그는 몇 푼의 돈에 자기의 인생과 기요의 목숨을 걸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깊은 슬픔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힌다. 작가는 도박이라는 일종의 환상 속에서 현실을 망각하려한 클라비크의 비열한 행위를 인생의 파멸로 이끌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삶의 고뇌를 가중시키는 실체를 제시한다. 도박이 끝난 후 클라비크는 “도박은 죽음 없는 자살(“le jeu est un suicide sans mort”⁶⁾)이라고 인생의 패배를 토로하며, 말로는 이를 마치 독을 마시고 기다리는 사람에 비유한다(“Comme s’il eût attendu après avoir avalé un poison.” 마치 그는 독을

4) *Ibid.*, p.539.

5) *Ibid.*, p.688.

6) *Ibid.*, p.689.

마신 뒤에 기다리는 것과 같다.⁷⁾).

말로의 등장인물들은 죽음에 대한 시각을 서로 달리하며 그 대응방법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능동적 행동에 의하여 죽음이 라는 실존의 위협에 저항을 하지만, 『인간조건』(*La Condition Humaine*, 1933)에 나타나는 지조르의 경우 행동의 영역에서가 아니라 아편을 통한 명상과 관조의 태도로써 정신적인 영역으로의 도피를 모색한다. 그의 아편 세계는 인간의 본질적인 고뇌와 운명의식을 떨쳐 버리는 수단이 되는 동시에 내적인 자유를 획득하고자 하는 일종의 일탈행위가 된다. 이 작품에서 지조르는 자신의 아들 기요의 죽음을 보고 인생의 허무감속에 빠져든다. 그는 기요의 죽음을 마치 신의 자살이라고 간주할 만큼 고통스러워하며, 아편의 힘을 빌려 운명의 근본적인 고뇌에 대하여 명상을 시도한다. 그 명상의 세계는 지조르를 우주와 결합시키며 의식에서 죽음의 고뇌와 운명의 시련을 사라지게 해 준다.

“Il sembla à Gisors que ce vent passait à travers lui comme un fleuve, comme le temps même, et, pour la première fois, l'idée que s'écoulait en lui le temps qui le rapprochait de la mort ne le sépara pas du monde mais l'y relia dans un accord serein.”⁸⁾

지조르는 바람이 마치 강물처럼, 시간 그 자체처럼 자기의 육체 속을 흘러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져가는 시간이 몸 안에서 흐르고 있다는 생각은 처음으로 그에게 있어서 세계와 격리된 것이 아니라 조용한 조화 속에 연결시켰다.

지조르는 아편에 의한 명상 속에서 죽음의 의식에서 해방되고 운명의 고뇌를 초월하게 된다. 하지만 말로는 아편에 의존하는 이러한 명상에 대해 인간의식의 한계점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작가는 지조르 스스로 인간의 정신은 영원 속에서만 생각하며, 삶의 의식은 고뇌일 수밖에 없다⁹⁾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영원을 추구하는 환상 속에서만 운명의 고뇌를 망각

7) *Ibid.*, p.689.

8) *Ibid.*, p.759.

9) *Ibid.*, p.759.

할 뿐 인생의 실체는 운명의 고뇌와 고통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며, 의존상황이 아닌 현재의 실제세계 속에서만 자아의식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로는 삶의 부조리로 인한 등장인물들의 소외의식을 고통과 죽음의 강박관념을 통해 투영하며 거기서 인간의 정체성과 관련된 자아의식과 실존의 양태를 환기시키고 있다. 소설에서 작가는 등장인물들의 고뇌에 대하여 자신의 존재는 누구인가라는 존립의 근거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며, 죽음의 강박관념 속에서도 자유의식을 획득하려는 삶의 의지를 나타낸다.

2. 실존의식

말로의 등장인물들은 죽음의 의식과 그들의 인간조건으로 인하여 존재의 부조리를 느끼며 고통 속에 빠져든다. 하지만 그들은 삶의 중압감과 운명의 억압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려는 실존적 의지를 표출한다. 작가는 운명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도전과 초월적 의지를 에로티즘과 폭력의 세계를 통하여 제기하며, 인간을 우주의 중심으로 놓고 스스로 탐구에 이르게 되는 자아성찰의 측면을 숙고한다.

말로의 소설에서 에로티즘은 애정에 의한 남녀 간의 육체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상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단순한 성행위의 양상도 아니다. 그것은 타인과의 육체적 결합을 통하여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기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실존의식에서 기인한 권력의 의지로 파악할 수 있다. 에로티즘의 세계 속에서 여성은 다만 육체적인 쾌락의 대상이 될 뿐이며, 독립적인 인간존재로서의 가치가 인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성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는 일종의 도구일 뿐이다. 이러한 에로티즘의 문제를 말로는 『왕도의 길』(*La Voie Royale*, 1930)에서 사랑의 환상에 빠져 있는 호색주의자들은 여자가 섹스의 보조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섹스를 여자의 보조물로 생각한다고 지적한다.

“on ne sait pas se délivrer de l’amour : un homme qui pense, non à une femme comme au complément d’un sexe, mais au sexe comme au complément d’une femme, est mûr pour l’amour.”¹⁰⁾

사랑의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여자가 섹스의 보조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섹스를 여자의 보조물로 생각한다.

또한 『정복자』(*Les Conquérants*, 1928)에서 작가는 가린느의 에로티즘에 대하여 성욕은 단순한 육체적인 갈증이며, 남성이 일에 열중하기 위해서 미리 즐기는 유희에 불과하다고 묘사하면서, 에로티즘은 애정이 결핍된 본능적인 욕구충족과 동일하다는 점을 피력한다. 하지만 에로티즘은 말로의 등장인물들에게 있어 삶의 가치가 되기도 하며 성적인 결합을 통해 그들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그들은 여성에 대한 육체적인 구속을 통하여 삶의 고뇌와 인간조건을 초월하려고 한다. 에로티즘은 죽음까지 파고드는 삶이며 인간의 내적인 삶의 한 양상으로 초월적 의미를 부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¹¹⁾ 이 점과 관련해 말로는 남성은 자신의 인간조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여성을 이용한다고 이야기한다.

“Il faut toujours s’intoxiquer : Ce pays a l’opium, l’Islam le haschisch, l’Occident la femme... Peut-être l’amour est-il surtout le moyen qu’emploie l’Occidental pour s’affranchir de sa condition d’homme...”¹²⁾

항상 중독되어야 합니다. 아편이 이슬람의 나라들에는 헤시쉬 그리고 서양에는 여자가... 서양 사람이 인간조건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수단은 아마 여자일 것 입니다.

즉 말로의 작품세계에서 에로티즘은 운명의 고뇌와 의식을 억압하는 모든 인간적인 굴욕과 죽음의 불안 등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왕도의 길』(*La Voie Royale*, 1930)에서 페르캉은 회복 불가능한 화농성 관절염에 걸려 죽음을 의식하게 되면서, 그가 이루려 했던 인생의 계획

10) Malraux(André), *La Voie Royale*, Bibliothèque de la Pléiade(Gallimard) (Euvres Complètes I, Paris, 1989, p.371.

11) Bataille(Georges), *L’Erotisme*, Paris, Minut, 1957, p.17.

“De l’érotisme, il est possible de dire qu’il est l’approbation de la vie jusque dans la mort.”

에로티즘 그것은 죽음까지 파고드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12) *Op. Cit.*, Malraux, *La Condition Humaine*, p.679.

과 의지가 수증기처럼 증발해 버리는 것을 느끼고 끝없는 고독과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한다. 그는 죽음의 의식을 붙잡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강렬한 열망을 표시하며 마지막으로 창녀를 요구 한다. (“Et trouve-moi des femmes pour ce soir.”¹³) 그리고 오늘 밤에 계집애들을 데려 오게.) 다시 말해 페르캉은 남녀 간의 육체적인 결합 속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생동감을 의식하며 운명의 고뇌에서 벗어나려 한다. 결국 그는 죽음이 다가 오는 순간 여성을 소유하고 상대적인 소유감과 충만한 지배감으로 인하여 인간을 우주의 우연성 앞에서 시간적으로 제한하는 인간조건에서 해방되며, 살아있는 듯한 역동적인 자기의 존재를 확인한다.

“L’air était suspendu comme si le temps se fût arrêté, comme si le tremblement des doigts de Perken eût seul vécu dans le silence soumis à l’immobilité asiatique de ce visage au nez courbe et fin.”¹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대기는 정지되어 있었다. 페르캉의 떨리는 손가락만이, 이 가냘프고 굵은 코를 가진 계집의 아시아적인 딱딱한 표정의 얼굴을 지배한 침묵 속에서 살아 있는 듯한 정적이었다.

그러나 말로는 소설에서 이러한 에로티즘의 한계점을 분명히 한다. 정사가 끝난 후 페르캉은 남녀 간의 성적 결합을 마치면서 나타나는 공허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창녀의 얼굴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무명의 얼굴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작가는 “오직 사랑하는 것만이 소유하는 것이다 (“On ne possède que ce qu’on aime.”)¹⁵라고 이야기하며, 에로티즘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말로의 작품에서 제시되는 대부분의 호색주의자들은 그들이 모험, 혁명 등 죽음이 현실화되는 상황에 몰입하게 되면서 의식에 나타나는 삶의 고뇌, 고독 그리고 절망감을 극복하려는 의지적인 형태로 에로티즘이 유발되지만, 등장인물 폐탈의 경우에 있어서 에로티즘의 동기는 매우 다르게 묘사된다. 대부분의 호색주의자 등장인물들에게 있어 에로티즘은 생명에 위협을 받게

13) *Op. Cit.*, Malraux, *La Voie Royale*, p.482.

14) *Ibid.*, p.486.

15) *Ibid.*, p.487.

되는 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작용하지만, 페랄의 에로티즘은 자기 과시욕으로써 일종의 권력행사의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인간조건』(*La Condition Humaine*, 1933)에서 프랑스-아시아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경제력을 휘두르는 페랄은 자기 확신에 찬 인물이며 그에게 있어서 죽음의 공포나 내면의 깊은 고독, 혹은 삶의 고뇌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는 인간들 사이에서의 유일한 이해의 방법은 여성은 그의 육체를 남성에게 맡기는 것이며, 남성을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Se donner, pour une femme, posséder pour un homme, sont les deux seuls moyens que les êtres aient de comprendre quoi que ce soit.”¹⁶⁾

-여자가 남자에게 몸을 맡기는 것과 남자가 여자의 몸을 소유하는 것은 인간들이 서로 이해하기 위한 유일한 두 가지 방법이야.

페랄은 남녀 간의 관계를 남성의 지배와 여성의 복종에 의해서만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권력의 힘에 의하여 여성을 복종시켜 자기의 운명을 조정하고 자기의 인간조건에서 벗어나려는 전지전능의 열망으로 요약 된다.¹⁷⁾ 그의 욕망은 정부 발레리와의 관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는 돈의 힘으로 부유하고 도도한 디자이너인 발레리의 육체를 정복함으로써 세계에 대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운명에 대하여 존재를 확인해 보려 한다. 하지만 말로는 인간이 에로티즘의 세계 속에서 진정으로 인간조건을 초월할 수 없다는 것을 제시한다. 에로티즘은 호색주의자들을 육체적인 결합이라는 환각 속에만 묶어두며, 그것은 외부세계와는 격리된 하나의 관념이기 때문이다. 소설에서 페랄은 발레리로부터 절교를 당한 후 비참한 심정으로 중국 창녀와 성행위를 하면서 에로티즘은 자기 자신과 섹스 파트너를 모욕할 뿐 아니라 둘 모두를 모욕 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의 관념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독감에 빠진다.

“L’étroisme, pensa-t-il, c’est l’humiliation en soi ou chez l’autre,

16) *Op. Cit.*, Malraux, *La Condition Humaine*, p.596.

17) *Ibid.*, p.679.

peut-être chez tous les deux. Une idée, de tout évidence.”¹⁸⁾

에로티즘은 자기를, 혹은 남을 모욕하는 것이다. 어쩌면 양쪽 모두를 모욕하는 것 일지도 모른다. 하나의 관념인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에로티즘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말로는 『서양의 유혹』(*La Tentation de l'Occident*, 1926)에서 에로티즘을 하나의 숙명으로 평가한다.¹⁹⁾ 에로티즘은 인간의 고뇌를 해결하는 장소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극복해야 할 숙명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로가 제시하는 에로티즘은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여성의 위치는 인간존재로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며 남성들의 고뇌와 굴욕을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도구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등장인물들에게 중요성을 갖는 것은 운명에 대항하고 맞서는 실존적 행동의 양상이 되기도 하며 그들이 감내하는 인간조건을 스스로 초월하려는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타인의 육체를 구속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는 에로티즘은 타인의 육체를 파괴하는 폭력의 세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인간에게 있어서 무의식적인 만족이라는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욕망을 충족시켜 준다는 점에서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 점에 대하여 르네 지라르는 성과 폭력은 모두 금기의 영역이며 성적흥분과 폭력에 대한 육체적인 반응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말하며, 폭력도 에로티즘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심오하고 본질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²⁰⁾

말로는 문학작품에서 폭력의 세계를 에로티즘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확인해 보려는 권력에의 의지의 형태로써 제시한다. 『인간조건』(*La Condition Humaine*, 1933)에서 혁명을 준비하며 무기거래상으로부터

18) *Ibid.*, pp.681-682.

19) Malraux(André), *La Tentation de l'Occident*, Bibliothèque de la Pléiade(Gallimard) Œuvres Complètes I, Paris, 1989, p.82.

20) Girard(Réne), *La Violence et Le Sacré*, Paris, Bernard Grasset, 1972, p.58.

“L'excitation sexuelle et la violence s'annoncent un peu de la même façon. La majorité des réation corporelles mesurables sont les même dans les deux cas.” 성적흥분과 폭력은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난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취할 수 있는 육체적 반응은 대부분 같은 것이다.

터 충기를 탈취하기 위해 첸이 살인을 할 때, 그는 자신이 전사가 아니라 제례의식에서의 제사장으로 인식하며 살인대상자를 마치 혁명을 위한 희생 제물로 여긴다. 첸이 살인을 하면서 자신의 살인행위를 마치 제례의식으로 간주하는 생각은 그에게 있어 살인에 대한 폭력의 정당한 근거가 되며 신성한 세계와의 접촉을 의미한다. 제례의식에서의 희생제물은 제사장과 신성 사이의 중계자로서 희생제물에 대하여 이성적이고 정당한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²¹⁾ 따라서 살인의 순간 첸이 자신과 살인 대상자를 제사장과 희생 제물의 관계로 간주하는 의식은 하나의 소우주를 이미 지배하고 있다는 자기 초월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첸은 살인 직전 칼로 자신의 팔에 상처를 내 살인 대상자의 아픈 고통을 미리 느껴보는 희생자와의 교감을 시도하며, 살인의 타격을 가하는 순간 타인을 파괴하고 소유하는 놀라운 감각인 으스스뜨리는 도취에 사로잡히게 된다. 첸은 마치 제례의식에 서처럼 살인 대상자와의 동화를 통해 신성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여 희열을 느끼는 도취에 빠져 들어감으로써 자기 자신의 존재를 초월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감각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또한 살인의 순간 느껴지는 인간중속의 쾌감은 성적행위처럼 나타나기도 한다.²²⁾ 소설에서 첸이 살인 대상자를 칼로 찌르는 행위가 마치 침대에서 남녀의 육체적인 작용과 반작용의 성행위처럼 묘사되고 있다.

“Sensible jusqu’au bout de la lame, il sentit le coups rebondir vers lui, ralancé par le sommier métallique. Il raidit rageusement son bras pour le maintenir.”²³⁾

칼끝까지의 감각이 몸뚱이가 침대의 스프링에서 튕겨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육체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팔을 꽉 쥐고 눌렀다.

살인 타격의 순간 첸은 성행위처럼 상대방의 육체를 칼로 찢러 누르고, 칼끝의 감각을 통하여 부서지는 도취의 순간적인 쾌감을 경험한다. 그리고

21) *Ibid.*, p.20.

22) Mauriac(Claude), *Malraux ou le mal de héros*, Paris, Grasset, 1964, p.74.

“Tchen turait comme on fait l’amour” 첸은 마치 섹스를 하는 것처럼 살인을 한다.

23) *Op. Cit.*, Malraux, *La Condition Humaine*. p.513.

나서 그가 살인경험을 자신의 스승 지조르에게 고백할 때 그의 첫 번째 살인행위를 마치 첫 번째 성행위처럼 비유한다. 첸은 살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치 성경험이 없는 동정들(*les puceaux*)이라고 비난하며 우울감을 갖는다. 살인행위가 이처럼 첸에게 있어 황홀한 대상이 되는 것은 에로티즘의 세계 속에서 존재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을 파괴하고 지배하며 종속하는 살인의 감각은 그에게 자기의 존재를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자기 자신의 힘을 발휘하고, 강력한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자살을 통한 테러리즘의 세계에 들어간다.

“*Il(Tchen) se tuera.*», pensa Kyo. Il avait assez écouté son père pour savoir que celui qui cherche aussi âprement l’absolu ne le trouve que dans la sensation. Soit d’absolu, soit d’immortalité, (...) mais il sentait, comme tout mystique, que son absolu ne pouvait être saisi que dans l’instant. (...) ce qu’a toujours de sacré la présence de l’inhumain. Peut-être ne turait-il Tchang que pour se tuer lui-même.”²⁴⁾

‘그는 자살하게 될 거다.’ 라고 기요는 생각했다. 그는 이렇게 악착스럽게 절대를 추구하는 자는 그것을 감각 속에서만 찾아낸다는 것을 아버지에게서 들어 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절대에의 갈망, 불멸에의 갈망, (...) 하지만 그는 모든 신비주의자들처럼 첸이 절대를 순간 속에서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낀다. (...) 비인간적인 존재의 신성함을 갖는 것. 그가 장개석을 죽이려는 것은 아마도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일지도 모른다.

첸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직접 소유함으로써 절대에의 갈망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육신을 초월하고 운명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기 위해 죽음을 소유하는 테러리즘의 세계를 마치 여인과 동거를 하듯이 자신의 숙명처럼 인식하게 된다.

“*Alors? les femmes, je sais ce qu’on en fait, quand elles veulent continuer à vous posséder : on vit avec elles. Et la mort, alors? Plus amèremment encore,*

24) *Ibid.*, p.620.

mais sans cesser de regarder le phénix : un collage? [...] 《Une angoisse, nong, dit enfin Tchen entre ses dents. Une fatalité?》²⁵⁾

저는 여자들이 남자에게 매달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인과 동거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죽음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더욱 비장하게 봉황도를 바라보며 말했다. [...] 고뇌라고요? 아닙니다. 숙명이 아닐까요? 결국 첸이 씹어 뱉듯이 말했다.

첸이 결국 장개석의 차에 폭탄을 들고 뛰어 들어 자살하는 순간, 그는 황홀한 기쁨을 느끼며 자기 자신의 완전한 소유감에 빠진다. 그는 인간조건에서 벗어나 절대적 경지에 이르는 방법을 자신의 신체를 파괴하는 자살을 통하여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열망은 삶의 고뇌와 운명의 시련을 스스로 지워버리는 니힐리즘의 자기성찰인 것이다. 하지만 말로는 생명을 파괴하는 폭력의 문제점을 소설에서 제시한다. 그는 자살은 타락의 시작이라고 말하며²⁶⁾ 그것이 진정한 가치추구의 방법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말로는 전쟁과 혁명, 모험 등을 주제로 한 소설들 속에서 인간의 의지가 억압 받는 부조리한 상황을 제시하며 삶의 구속 혹은 운명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등장인물들의 시도로써 에로티즘과 폭력의 세계를 탐미한다. 이러한 등장인물들의 행위는 타인과 일체감을 형성할 수없는 독자적인 가치추구 혹은 권력에 대한 의지이며, 타인은 물론 행위 주체자도 공멸하게 되는 비극적인 숙명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말로는 인간의 의식이 연대감 속에서 서로 교류하고 통합되어 존엄성을 부여하는 존재의미를 숙고한다.

3. 존재의미

사회참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모험과 혁명, 전쟁의 소설들에서 말로는 주인공들의 동지애를 주요한 테마로써 가장 많이 다루고 있다. 『정복자』(*Les Conquistadors*, 1928)와 『왕도의 길』(*La Voie Royale*, 1930)에서 작가는

25) *Ibid.*, p.553.

26) *Ibid.*, p.645.

사회참여로 현실에 적극 동참하는 동류애를 주로 그려내고 있으며, 『인간조건』(*La Condition Humaine*, 1933)에서는 연대의식의 표상으로 희생적인 동지애를 강조하고, 그의 마지막 장편소설 『희망』(*L'Espoir*, 1937)에서는 동지애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적 동지애의 신화로 이어진다. 이 작품들에서 작가는 영웅들의 동지애 의식을 통해 생사를 함께하는 의지로써 인간이해의 영역을 제기하는 동시에 비참한 사회적 운명을 극복하고 존엄성을 부각시킨다.

말로는 동지애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동지애로 뭉쳐진 인간의 삶은 부조리한 것이 아니며 행동이 허무에 대한 고발이라면 함께하는 행동은 고독에 대한 고발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한다.²⁷⁾ 이러한 함께하는 동지애의 모습은 『정복자』(*Les Conquistadors*, 1928)의 등장인물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첸다이는 가난한 사람들의 먹고사는 생존문제에 의욕을 보이며 혁명에 참여한 인물로 피압박을 받는 민족의 승리보다도 오히려 비참한 사람들의 삶을 보살피는 인물로 나타난다. 그의 동지애는 동료들을 위한 자선행위로써 인도의 성인 마하트마 간디처럼 묘사된다.

“Mais son autorité est, avant tout, moral. On n’a pas tort, dit Garine, de parler de Gandhi à son sujet. Son action, quoique plus limitée, est du même ordre que celle du Mahatma.”²⁸⁾

그러나 그의 권위는 무엇보다도 도덕적인 것이다. 사람들이 그의 정체를 간디라고 부르는 것이 과오가 아니라고 가린느가 말한다. 그의 행동은 마하트마보다 제한되어 있지만 그와 같은 서열이다.

첸다이는 총독부와 경찰이 굶겨 죽이려는 당원들에게 자선을 베풀기도 하고,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들에게 사재를 털어 병원을 지어 주기도 한다. 그의 행위는 기독교도들과 마찬가지로 자선과 일치하는 것이며 그것은 연대 의식에서 기인하는 동지애의 숭고한 실천인 것이다.

27) Lacourt(Jean), *Malraux(Une vie dans le siècle)*, Paris, Seuil, 1973, p.419.

28) Malraux(André), *Les Conquistadors*, Bibliothèque de la Pléiade(Gallimard) (Euvres Complètes I, Paris, 1989, p.172.

또한 가린느의 동지애는 정치적 예속을 타파하려는 혁명의 과업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혁명은 부패한 사회에 대한 투쟁인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려는 연대의식의 영역이기도 한다. 혁명에 참가한 투사들은 공동의 적 앞에서 느끼는 강렬한 연대의식이 형성되며 그것은 동료들 사이에서의 일체감을 반영한다. 이 소설에서 가린느는 동료들 간의 연대의식과 우애가 인간의 고독을 해소 시키며, 자신이 죽은 후에도 그의 혁명의식이 계승될 것으로 확신한다.

말로의 문학작품들 속에서 주인공들의 혁명의식은 인간의 존엄에 기초하며, 동지애를 실천하는 영역으로써 인간존재에 가치를 부여하는 승리적 세계관을 반영한다. 그것은 부패한 사회 속에서 굴욕적인 삶을 바꾸기 위한 인간해방의 의식인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 세계를 문체화시키는 일종의 행동이 된다. 그들의 동지애는 사회변혁을 통해 억압받는 대중을 구제하기 위한 결속의식으로 혁명적 사고의 기반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말로가 제시하는 이러한 동지애는 게다가 인간의식의 본질적인 측면인 고독과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²⁹⁾ 이와 같은 인간들 간의 본성적인 결속 혹은 감각적인 교류는 소설 『왕도의 길』(*La Voie Royale*, 1930)에서 클로드와 페르캉의 관계에서 자주 등장한다.

이 소설에서 그들은 모두 자신의 고국을 떠나 목숨을 건 밀림의 유적을 탐사하게 되는데 처음 만나 서로 대면하자마자 알지 못할 인간의 본성적인 친밀감으로 결속된다. 클로드는 페르캉이 어떠한 유형의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자신을 성장시킨 할아버지와 유사한 공통점을 느끼고 그를 마치 가족 일원처럼 여기며 격의 없는 사이가 될 것이라는 감정을 갖게 된다. 결국 그들의 친밀감이 확대되어 생사의 처지가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동일한 신념과 행동 속에서 주음의 강박관념을 극복할 수 있는 서로간의 일체감을 깨닫게 된다.

“Et tout à coup, Claude découvrit ce qui le liait à cet homme qui l'avait accepté sans qu'il comprît bien pourquoi : l'obsession de la mort.”³⁰⁾

29) *Op. Cit.*, Lacouture, *André Malraux(Une vie dans le siècle)*, p.434.

30) *Op. Cit.*, Malraux, *La Voie Royale*, p.394.

갑자기 클로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이 사람과 연결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죽음의 강박관념인 것이다.

클로드는 밀림탐사를 동행하게 될 페르강에 대해 그가 기관총구입 등의 위험인물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탐험을 같이하는 동행자로서 아무런 조건과 이유도 없이 도움을 주고자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호응을 하는 우애가 형성된다.

“Nous jouons ensemble notre vie ; je suis ici pour vous aider, non pour vous demander des comptes. Si vous avez besoin de mitrailleuses, je regretterai seulement que vous ne m'en parliez pas, parce que j'aimerais à en trouver pour vous.”³¹⁾

우리는 함께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나는 당신을 도와주고 싶은 것이 지 당신으로부터 이익을 바라진 않습니다. 만약 기관총이 필요하다면, 나에게 말하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도와주고 싶으니까요.

여기서 클로드는 페르강과 서로 다른 배경과 동기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결속되어 여행을 하게 되면서 낯선 만남이긴 하지만 생존의 위협과 죽음을 서로 공유한다는 공감대의 형성과 더불어 타인을 위해 행동하고 존재할 수 있다는 동지에 의식이 투영된 것이다. 클로드는 페르강의 우애는 인간의 접근을 배제하며 목숨을 위협하는 밀림의 탐험 속에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안식을 찾기 위한 상호간의 연민적인 교류이며, 그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동질의식인 의지적 연대의식이다.

말로의 문학작품에서 이와 같은 인간들 사이의 연대감은 집단적인 행동으로 투영되는 혁명의 세계 속에서 비참한 대중들을 구제하려는 휴머니즘에 기초한 존재의 가치추구 양상을 나타낸다. 특히 『인간조건』(*La Condition Humaine*, 1933)에서 작가는 인간의 행동이 세계에 반영되어 삶을 변형시키고 자유를 향유하는 초월적 인간의식을 혁명의 사상 속에서 숙고한다. 이

31) *Ibid.*, p.410.

소설에서 주인공들이 혁명에 참가하게 된 동기와 기원은 서로 다르며 이에 대한 시각도 달리한다. 기요가 참가하게 된 경위는 공산주의 사상가인 아버지 지조르의 영향이며 카토프는 젊은 시절 시베리아에서 오테사감옥의 공격에 참가한 이후 공산주의에 대한 사상적 이끌림에서이다. 다시 말해 카토프에게 있어 인간의 존엄을 위한 혁명은 숙명이 되고 기요에게 있어서 혁명은 하나의 의지가 된다. 소설에서 기요는 비참한 생활을 하는 중국 사람들에게 공산주의 혁명사상을 통해서 존엄성을 고취시켜주는 노력을 한다. 그에게 있어서 혁명사상은 사회적 예측을 타파시키고 존엄성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Je pense que le communisme rendra la dignité possible pour ceux avec qui je combats. Ce qui est contre lui, en tout cas, les contraint à n'en pas avoir.”³²⁾

공산주의는 나와 함께 사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엄성을 가능케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튼 그것을 갖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개인주의를 초월하는 기요의 동지애적인 연대의식은 혁명의 참가로 인하여 그의 삶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며 행동으로 염원하는 인간존중을 추구하는 것이 된다. 그에게 있어서 혁명은 하나의 사상이며 종교로 대체 될 수 있을 만큼 하나의 가치를 지닌다.³³⁾ 이러한 씩씩한 동지애(*la fraternité virile*)는 행동 속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동류들 사이에서의 연대감이며 그것은 인간의 희망과 명예를 위한 투쟁의 양상이 된다. 즉 씩씩한 동지애의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되는 개념이다. 『인간조건』(*La Condition Humaine*, 1933)에서 작가는 인간의 존엄은 굴욕의 반대라고 말한다.

“--Qu'appellez-vous la dignité? Ça ne veut rien dire! [...]

《Le contraire de l'humiliation》, dit Kyo.”³⁴⁾

32) *Op. Cit.*, Malraux, *La Condition Humaine*, p.723.

33) Dumazeau(Henri), *La Condition Humaine Malraux*, Paris, Hatier, 1974, p.63.

존엄성은 무엇이라고 부르지? 그건 말하고 싶지 않아요! [...]
《굴욕의 반대》라고 기요가 말한다.

썩썩한 동지에는 행동을 통하여 굴욕적인 인간을 의미 있는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동지에는 따라서 인간의 고통과 고뇌를 덜어주고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자각과 삶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한 소설에 나타난 혁명적 동지에는 사회의 악을 일소시키는 기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일깨워줌으로써 인간을 절망에서 해방시키는 인간성 회복의 사상을 나타낸다. 작가는 소설에서 카토프의 행동을 통하여 썩썩한 동지애의 이상적인 형태를 제시한다.

카토프의 동지애는 동료들과 함께 처형을 기다리며 그들을 위해 희생함으로써 심오해지고 더욱 의미를 갖게 된다. 혁명에 실패하여 수백 명의 혁명동지들이 차례차례 기차의 보일러에 끌려들어가 온몸을 태워 죽임을 당하는 처형을 기다리면서 그는 기요와 동지애로써 결합된다.

“mais relié à lui(Kyo) par l'amitié absolue, sans réticences et sans examen, que donne seule la mort : vie condamnée échouée contre la sienne dans l'ombre pleine de menaces et de blessures, parmi tous ces frères dans l'ordre mendiant de la révolution : chacun de ces hommes avait rageusement saisi au passage la seule grandeur qui pût être la sienne.”³⁵⁾

그러나 그는 죽음만이 가져 올 수 있는 망설임도 없이 검토의 여지도 없는 절대적인 우정으로 기요와 결합되어 있었다. 위협과 부상으로 가득한 어둠 속에서 혁명 동지들의 틈에서 기요의 운명과 맞대어 있는 그의 운명. 그 동지들은 각각 마지막 길에서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인간 위대성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다.

기요는 혁명동지로서 생사를 같이 하는 카토프와의 동료애를 마치 영혼의 휴식처처럼 느끼며 자신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자살을 행한다. 기요

34) *Op. Cit.*, Malraux, *La Condition Humaine*, p.723.

35) *Ibid.*, p.732.

의 자살 이후 카토프는 비인간적인 고통 속에 빠져들지만 처형의 공포를 떨고 있는 다른 두 동료들 바라보며 인간은 죽음의 고통보다 더 강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는 최악의 공포 속에서 존엄을 지키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던 자기 몫의 자살용 청산가리를 동료에게 건네주고 당당히 처형장으로 향해 간다. 이러한 카토프의 희생적 동지애는 비인간적인 세계에서 존엄을 위한 인간회복의 위대함이 투영된 것이다.

“Mais un homme pouvait être plus fort que cette solitude et même, peut-être, que ce sifflet atroce : la peur luttait en lui(Katow) contre la plus terrible tentation de sa vie [...] ce don de plus que sa vie, Katow le faisait à cette main chaude qui reposait sur lui, pas même à des corps, pas même à des voix.”³⁶⁾

그러나 인간은 이 고독 보다, 아마도 저 잔악한 기적 소리보다 더 강할 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공포심이 그의 일생 중 가장 지독한 유희과 싸우고 있었다. 카토프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 선물을 육체의 주인도 아니며, 목소리의 주인도 아닌 자기 위에 얹힌 뜨거운 손에 넘겨주고 있었다.

타인을 위한 희생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품격도 높이는 인간 최고의 가치로 평가되기에 카토프의 청산가리 선물은 최고의 동지애를 상징하며, 그것은 숭고한 인간정신의 승리를 의미한다. 카토프의 희생적인 동지애는 죽음의 비극이 존재의 추락이 아니라 죽음에 가치를 부여하며 인간을 명예로 전환된 것이다. 말로는 『희망』(*L'Espoir*, 1937)에서 모욕의 반대는 평등이 아니라 동지애라고 말한다.

“le contraire de ça, l’humiliation, comme il dit, c’est pas l’égalité. [...] c’est la fraternité”³⁷⁾

모욕의 반대는 그의 말처럼 평등이 아닙니다. [...] 그건 우애입니다.

36) *Ibid.*, p.737.

37) Malraux(André), *L'Espoir*, Bibliothèque de la Pléiade(Gallimard) Œuvres Complètes II, Paris, 1996, p.82.

동지애는 말로에게 있어서 평등에서 발전된 인간들 사이에서 이해를 하고 포용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병폐로 인해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등과 동지애는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동지애는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에 근본을 두고 이해관계를 떠나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인간의 위대함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소설 『희망』(*L'Espoir*, 1937)은 작품의 주제로써 동지애의 이미지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그것은 공동체적인 행동 속에서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들을 결속시키고 삶의 희망을 제시한다. 파시스트의 폭정에 항거하기 위해 스페인 내란전쟁에 직접 참전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전장 체험을 논픽션으로 서술한 말로는 소설에서 등장인물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인간의 자유와 품격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Quant à ce que nous entendons par la fenêtre, monsieur Magnin, c'est l'apocalypse de la fraternité. Elle vous émeut. [...] Le rêve de la liberté totale, le pouvoir au plus noble et ainsi de suite, tout ça fait partie à mes yeux de ce pour quoi je suis ici.”³⁸⁾

창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바로 동지애의 목시록이요. 마넝씨, 그건 당신을 감동 시킵니다. [...] 완전한 자유의 꿈, 가장 고귀한 자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평등은 모두가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의 일부분이 된다고 눈에 비쳤기 때문이요.

작가는 소설의 배경인 스페인내란전쟁 속에서 인간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파시스트의 폭력을 끊임없이 보여주며 공동체적인 기율과 조직을 통하여 이에 항거하는 인간들의 형상을 묘사한다. 마누엘이 공화파 대원들과 함께 장갑차로 적의 기관총고지를 공격할 때 동료들 사이에 살과 살이 맞는 교감 속에서 동지애로 충만한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그들은 하나의 개인 보다는 전체라는 공동체 의식을 느끼며 생사의 갈림길인 전투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조차 잊어버리고 기뻐한다. 즉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며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사의 기로에 있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역설

38) *Ibid.*, p.99.

적으로 기쁨과 환희, 희망이 충만해 있는 동지애로 인해 인간의 위엄과 자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영웅들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Tous eurent envie de s’embrasser. La train tirait au hasard sur l’emplacement présumé des batteries et des mitrailleuses.”³⁹⁾

모두들 서로 포옹하고 싶어 한다. 장갑차는 포좌와 기관총이 있다고 가상되는 곳을 마구 쏘고 있었다.

이처럼 공동체 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씩씩한 동지애는 인간의 가치추구를 반영하며 인간을 새로운 존재로서 인식하게 한다. 말로의 씩씩한 동지애는 인간의 자유를 얻고자하는 모험과 혁명의 투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인간들에게 해방과 자유의 의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로의 동지애는 인간들 사이의 의식적인 교감을 통하여 상호간의 화합과 이해를 이루는 인간존중의 사고를 반영하고 있으며, 부조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절망과 비극을 희망으로 인도하고 운명의 억압에 대한 초월적 의식과 결부되고 있다.

III. 맺음말

모험과 혁명, 전쟁을 작품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정복자』(*Les Conquistadors*, 1928), 『왕도의 길』(*La Voie Royale*, 1930), 『인간조건』(*La Condition Humaine*, 1933), 『희망』(*L'Espoir*, 1937)의 소설에서 등장인물들은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 절망과 허무, 운명의 시련에 빠져든다. 말로는 이러한 비극적 세계관에서 인간성과 삶을 긍정하고 죽음을 부정하는 등장인물들의 의식과 행동을 숙고한다. 죽음의 고뇌는 예측할 수 없는 본능적인 욕구와 도박, 아편 등의 도피적 행동을 유발하지만, 그것은 절망에서 벗어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며 자신의 존재는 누구인가라는 존립근거에 대한 심오한 의문이다. 말로의 실존주의적 사고로서 항상 부각되는 점은 죽음에 대한 운명의식으로

39) *Ibid.*, p.55.

인해 결국엔 인간이 얼마나 고독한 존재인가라는 숙명적 인간조건의 한계를 보여주는 비극적 형이상학이다. 말로는 죽음의 강박관념이라는 감내하는 운명에서 지배하는 운명으로 스스로 운명을 뛰어 넘으려는 실존의식과 존재의미를 숙고한다.

죽음은 거역할 수 없지만 죽음으로 인한 운명의 시련은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선 등장인물들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렬하게 살기 위해 의지적 삶의 표현인 에로티즘과 폭력의 세계에 탐미하는 모습을 말로는 제시한다. 이러한 에로티즘과 폭력의 세계는 삶의 부조리라는 자기 고독에서 탈출하고 나아가 인간조건을 초월할 수 있는 실존적 권력의 의지가 됨으로써 그 중요성을 갖는다. 말로의 등장인물들은 따라서 최후의 삶을 강렬하게 누리기 위해서 에로티즘과 폭력의 행동을 발산시키며 자기 확인의 존재감을 소유하게 된다. 하지만 타인과 일체감을 형성할 수 없는 이러한 일방적인 의지는 비극적인 숙명을 포함하고 있기에 작가는 인간의 의식이 연대감 속에서 서로 교류하며 존엄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존재의미를 제시한다.

『정복자』(*Les Conquistadors*, 1928), 『왕도의 길』(*La Voie Royale*, 1930), 『인간조건』(*La Condition Humaine*, 1933), 『희망』(*L'Espoir*, 1937)의 소설에서 등장인물들은 모험과 혁명, 전쟁의 와중에서 동료들과 함께 행동하며 타인을 위하여 개인주의를 초월하는 동지애적인 연대의식은 인간존중을 추구하는 것이 된다. 인간애와 인간성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자발적으로 구성된 인간들 사이의 동지애는 단순히 개인들의 합이 아니라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개인을 초월하고 무한한 인간의 위대함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로의 동지애는 인류 모두가 동질성을 고취시켜 휴머니즘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의식의 승리를 포함한다.

■ 참고문헌

〈Malraux의 문학작품〉

*Œuvres Complètes I(*Lunes en Papier, La Tentation de l'Occident, Les Conquérants, La Voie Royale, La Condition Humaine, Le Temps du Mépris*), Paris, Bibliothèque de la Pléiade(Gallimard), 1989.

*Œuvres Complètes II(*L'espoir, Les noyers de l'Altenburg, Le Démon de l'Absolu*), Paris, Bibliothèque de la Pléiade(Gallimard), 1996.

〈Malraux의 문학에 대한 비평서〉

김응권, 『앙드레 말로』, 어문학사, 1995.

_____, 『앙드레 말로의 문학세계』, 동문선, 2005.

레미 코페르(장진영 역), 『앙드레 말로(1901~1976, 소설로 쓴 평전)』, 이룸, 2001.

송기형, 『앙드레 말로』, 건국대학교출판부, 1995.

Boisdeffere(Pierre de), *André Malraux*, Paris, Edition du Rocher, 1996.

Carduner(Jean), *La Création Romanesque Chez Malraux*, Paris, Libraire Nizet, 1968.

Dumazeau(Henri), *La Condition Humaine Malraux*, Paris, Hatier, 1974.

Lacourtüre(Jean), *André Malraux(Une vie dans le siècle)*, Paris, Seuil, 1973.

Mauriac(Claude), *Malraux ou le mal de héros*, Paris, Grasset, 1964.

Moitti(Christiane), *Le Prédicateur et ses Masques(Les personnages d'André Malraux)*, Paris, La Publication Sorbonne, 1987.

〈일반도서〉

박정하 외, 『문화와 철학』, 동녘, 1999.

Bataille(Georges), *L'Erotisme*, Paris, Minut, 1957.

Girard(Réne), *La violence et Le Sacré*, Paris, Bernard Grasset, 1972.

Picon(Gaëtan), *Panorama de la Nouvelle Littérature Française*, Paris, Gallimard, 1960.

❖ ABSTRACT

Existential Consciousness and the Meaning of Characters in André Malraux's Literary Works

Oh, Se-jung

Among 20th century Western ideologies (Western civilization), existentialism is a spirit of the times to restore humanity as rationality and advanced technology have driven mankind to impoverishment and death, experiencing the First and Second World War, Great Depression, Fascism and the Spanish Civil War. In his literature, André Malraux records his existential agony of how mankind lives and faces death by questioning the fateful life and death of characters. For Malraux's characters, the absurdity of existence related to the human identity means self-examination. Malraux explores existential consciousness and actions of characters in the presence of a concept known as death relative to terror, revolution, and adventure. Malraux deftly addresses the concept of death in his literary works, and it has being emphasized as a central subject for philosophical speculation.

In *Les Conquérants*(1928), *La Voie Royale*(1930), *La Condition Humaine* (1933), *L'Espoir*(1937), Malraux suggested a philosophical thesis of the meaning of life through characters in tragic situations, and sought out the consciousness of being and the existential meaning through how the characters control their fate. Malraux, in such a tragic perspective of the world, portrays humanity, affirmation of life, and characters' consciousness and actions in denying death. The agony of death triggers escapist behavior such as having unpredictable instinctual desires such as gambling or smoking opium, but these are desperate struggles to flee from frustration and related to the question of one's existence.

What is always emphasized with respect to Malraux's existentialism is

the tragic metaphysics of the inevitable destiny of the human condition eventually leading to the question of how humans ultimately confront death. But as characters unite in times of war, revolution and adventure in the novel, such cooperative actions symbolizes a keen sense of solidarity reflecting a camaraderie that transcends individualism. Fellowship among people who voluntarily gather for the common cause of philanthropy and restoring humanity is possible because of the underlying human greatness to sacrifice for such a noble cause. Therefore, Malraux's camaraderie includes the victory of existentialism in creating a world of humanism.

Key Words : André Malraux, existential consciousness, presence meaning, self-examination, philosophical speculation

■ 논문접수일 : 2017. 5. 10

■ 심사완료일 : 2017. 5. 31

■ 게재확정일 : 2017. 6. 2